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	**보도자료**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2012년 7월 25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자료문의 : 지식경제부 자동차조선과 김정회 과장, 강규형 사무관(5635)		

전기차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'이용' 하세요 !

- 전기차 쉐어링 시범서비스 착수 및 민간 체험단 출범 -

□ 지식경제부는 7.25일(수요일) 한전본사에서 홍석우 장관, 한전 김중겸 사장, 동국대 김희옥 총장, 자동차부품연구원 허경원장, AJ렌터카 반채운 사장, 민간 체험단(15명) 등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'전기차 쉐어링 시범 서비스 착수 및 민간 체험단 출범 기념행사'를 개최하였음

○ '전기차 쉐어링 서비스'는 렌트카와 유사하나 전기차를 시간 단위로 필요한 만큼만 쓰고 반납하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음

< 전기차 쉐어링 서비스 이용 例 >

◈ 이용은 회원으로 가입하고, 온라인 검색으로 이용가능 차량여부를 조회하고 사전 예약 신청 후 전기차를 배정받아 이용하고 반납을 하면됨



□ 홍석우 장관은 금일 인사말에서 지금까지 전기차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정부는 기술개발, 보급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同 서비스 오픈을 통해 '① 소비자 인식제고', '② IT를 활용한 전기차 관련 新서비스 모델' 마련이라는 성과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함

○ 홍석우 장관은 금일 오픈된 서비스가 그간 공공기관에만 한정되어 보급되던 전기차를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첫 사례로 소비자 인식 제고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언급함

- 지금까지 높은 전기차 가격*으로 인해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입·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바, 일반 소비자가 전기차쉐어링을 통해 소유가 아닌 이용의 개념으로 시간 단위로 전기차를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없이 전기차 경험이 가능

* RAY : 전기차 (4,500만원), 가솔린차 (1,135만원)

○ 또한 同 서비스는 핸드폰, 웹사이트 등의 IT기술과 접목된 '융합型 新서비스' 창출의 모범사례로 금일 오픈식 성과를 설명함

- 금일 행사를 기화로 전기차 관련 부품 등 제조업뿐만 아니라 관련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

□ 또한 홍석우 장관은 향후 서비스 사업자와 이용자가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現 시스템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, '전기차 쉐어링 서비스'가 국내에 정착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

○ 장관은 전기차 민간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까지 개발된 성과물*을 서울시, 경기도 등의 지자체와 민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 시 공유할 것을 약속하며,

* ① 운영시스템 : 전기차 예약, 배차, 관리를 위해 사업자가 활용하는 시스템
② 단말장치(OBU) : 운영시스템과 연계한 이용자에게 차량 개방 등
③ 고객용 APP : 이용예약, 차량제어, 이용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안내
④ 충전소 운영시스템 : 충전기 관리, 운영상태감시 및 결제·과금기능 등 수행

○ 장관은 직접 핸드폰 단말기로 예약 신청 후 전기차(RAY)를 배정받아 시승하고, 시스템을 개발한 관련 사업자들의 노고를 치하함

□ 금번에 개발된 '전기차 쉐어링 서비스'는 旣 운영 중인 '가솔린차 쉐어링 시스템'과 달리 전기차 특성에 맞게 새롭게 구현된 한국형 시스템임

< 참여 업체별 주요 역할 >

기 관	주요 역할
한전	·전기차 공동이용서비스 프로세스 설계 ·전기차 충전소 12개소 구축 ·충전소 운영시스템 보완 개발 및 종합운영센터 구축
자부연	·전기차용 단말장치(OBU), 운영시스템 및 스마트폰용 App 개발
교통연	·사업후보지 선정을 위한 예상수요 분석기준 수립 ·사업후보지 적정성 평가 및 민간체험단 운영방안 수립
동국대	·다양한 요금제·서비스내용 개발을 위한 국내외 사례 분석
AJ렌터카	·전기차 공동이용서비스용 약관 제정, 서비스 운용

○ 차량내에서 잔여 사용시간 등 예약정보 확인 및 사고시 자동 호출이 가능토록 구현하여 이용자의 안전성 향상을 제고함

○ 또한 짧은 주행거리 극복을 위해 충전이 완료된 차량을 원격으로 우선 배차하고 충전소 위치를 안내하는 서비스 기능을 탑재

○ 마지막으로 '전기사용 피크시간대'는 전기차 충전을 줄이고 이외의 시간대에 충전이 될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과 비상전력 수급이 필요한 경우 직접 부하를 제어하는 기능을 구현

□ 홍석우 장관은 '전기차 쉐어링 서비스'를 미리 체험한 학생, 직장인, 주부 등으로 구성된 15명에 대해 '전기차 쉐어링 민간 체험단' 위촉장 증정식도 가짐

○ 사업자는 금일 선정된 15명을 포함한 제1차 체험단 1,000명*(거점별 80명)을 선정하여 8월6일부터 한달 간 이용요금 없이 전기차 쉐어링 서비스를 체험(1인당 최대 3시간/회, 총 5회 가능)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,

* 985명(체험단 15명 제외)은 '12.7.30~8.1일 홈페이지(www.evshare.co.kr)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 결과를 8월2일 통보할 예정임(서비스 : 8.6일~)

○ 체험인원의 극대화를 위하여 10월까지 매달 1,000명의 민간체험단을 다시 선정(8·9월은 20~25일 신청)하여 운영할 예정임

□ 사업자는 민간체험단을 운영하여 이용성과를 분석하고 서비스 보완 후 금년 11월부터는 전기차 쉐어링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할 예정임

○ 시범서비스와 동일하게 유상서비스도 수도권(분당, 일산)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자가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총 30대의 전기차(RAY)를 이용하여 2개 거점에서 운영할 예정이며,

< 전기차 쉐어링 거점 구축 현황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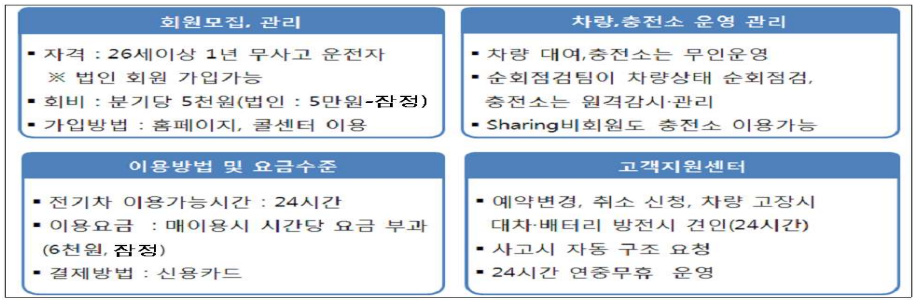
* 각 지점별 급속충전기 1기, 완속 2~3기를 설치, 차량은 2~3대를 배치
급속충전기 10기, 완속충전기 42기가 구축됨, 충전기는 개방형으로 운용

○ 예약은 홈페이지(www.evshare.co.kr), 콜센터(1544-1600),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능하며, 시간당 약 6천원(잠정)의 요금을 예상함

○ 이용자는 해당 거점에서 등록된 스마트폰 또는 회원카드로 차문을 열고 탑승 후, 차안에 비치된 키로 시동을 걸고 내비게이션 화면의 안내에 따라 시작 버튼을 눌러 서비스를 개시함

○ 마지막으로 사용 후 전기차를 반납시 가져가서 충전기를 연결하고 종료 버튼을 눌러야 서비스가 종료되고 과금이 완료됨

< 전기차 쉐어링 서비스 운영 방안 >



참고 1 행사 계획

◈ 전기차 쉐어링*의 그간 추진 성과를 격려하고 시범 서비스 시행에 따른 기념행사 및 민간체험단 위촉장 수여식 개최

* 개인이 전기차를 소유하지 않고도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이용 가능한 전기차를 제공하는 서비스

□ 행사 개요

○ 일시 / 장소 : '12. 7. 25(수) 09:30~10:05 /한전 본사

○ 참석자 : 50명 내외

- 지경부장관, 한전 김중겸사장, 동국대학교 김희옥총장, 자동차부품연구원 허경원장, AJ렌터카 반채운 사장 등 사업관계자
- 전기차 쉐어링 민간체험단 15명 (학생, 직장인, 주부 등으로 구성)

□ 주요 행사

① 개회사, ② 사업추진 경과보고, ③ 민간체험담 위촉장 증정 및 제막식, ④ 서비스 시승 및 체험

□ 세부 계획

시 간		내 용	진행	장 소
09:27~09:30	3분	•장관 행사장 입장	사회자	야외 전기차 충전소
09:30~09:35	5분	•인사말	장관	
09:35~09:42	7분	•사업 추진경과 보고	한전	
09:42~09:47	5분	•민간체험단 위촉장 증정 및 제막식	장관	
09:47~09:50	3분	•전기차 쉐어링 서비스 시연 (서비스 예약, 차량장착 시스템 설명 등)	한전	
09:50~10:00	10분	•전기차 시험주행(구내) (대여, 운행, 반납 등)	장관	
10:00~10:05	5분	•기념촬영	사회자	

참고 2 전기차 쉐어링 서비스 사업개요

◈ 전기차 쉐어링은 개인이 전기차를 소유하지 않고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이용 가능한 전기차를 제공하는 서비스

* 한전, 자부연, 아주렌터카 등 전문기관이 개발(정부 28억원, 민간 21억원)

□ 추진 배경 및 사업목표

○ 녹색위 이행점검('11.9월) 후 전기차의 수요기반을 점검하고 관련 서비스 사업자의 초기시장 진출 촉진과 확대가능성을 모색

○ 전기차의 높은 가격으로 일반인이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며, 同 상황은 전기차 이용활성화 장애요인 중 하나임

⇒ 同 사업은, 녹색성장의 성과물인 전기차를 일반인이 구매를 하지 않고도 이용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목적임

□ 사업 내용

○ 전기차를 원하는 시간만큼 이용하는 서비스로 한 지점에서 임대하여 동일 또는 타 지점에 반납하는 방식(전기차 30대 운영)

- 서울시-수도권의 출퇴근자, 근무시간 중 출장자 등을 대상

* 설치지점 : 한전(본사, 상계동북부, 강남, 여의도남서울본부), 여의도 국회의사당, 일산교통연구원, 상암동 LGU+ 본사, 서울대, 분당(정자역, 판교역) 등 12곳

- 이용자는 서비스 회원으로 가입하고, 온라인으로 사전예약 신청 후 전기차를 배정받아 이용 후 반납

< 전기차 쉐어링 서비스 이용 例 >



참고 3 전기차 쉐어링 서비스 운영 방안

◈ '12.8월부터 총 3,000명의 민간 체험단을 대상으로 무상서비스 제공 후, 11월부터 전기차 쉐어링 유상서비스 제공

＊(1단계, 무상서비스) '12.8월~10월, (2단계, 유상서비스) '12.11월~

□ 전기차 쉐어링 시범서비스 착수

○ '12.8월부터 3개월간 매달 1,000명의 민간체험단을 모집하여 무상 시범서비스를 실시

○ 운영시스템 및 서비스 안전도 보완·검증, 적정요금 산정 등 향후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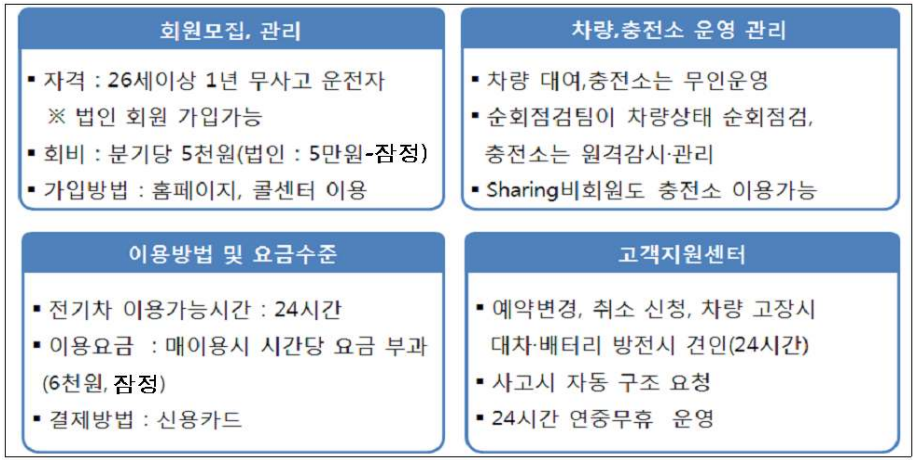
□ 전기차 쉐어링 본격서비스 착수

○ 3개월간의 시범서비스 기간 이후 '12.11월부터 유상서비스 제공

＊ 우선적으로 서울-수도권(분당, 일산) 출퇴근 자가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함

○ 운행 가능한 전기차와 충전인프라 구축을 확대하고 표준화된 공동 이용모델의 확대방안과 新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

< 전기차 쉐어링 서비스 운영 방안 >



참고 4 전기차 - 旣 운영 중인 카 쉐어링 시스템과 비교

< 전기차 쉐어링과 기존 카 쉐어링 시스템 비교 >

구 분	전기차 쉐어링 시스템	카 쉐어링 시스템
① 예약방법	인터넷, 스마트폰 앱	좌동
② 결제방식	신용카드(매회 이용건별 결제)	좌동
③ 차량위치파악	GPS 이용	좌동
④ 대여방식	사전예약제(편도대여/왕복대여)	사전예약제(왕복대여)
⑤ 이용자 확인	예약정보를 차량으로 전송 하고, 회원카드 등으로 식별후 차량문 개방	좌동
⑥ 예약정보 확인	전용 단말장치를 통해 예약정보를 차량으로 전송하여 화면에 제공	-
⑦ 운행 중 사고 시 자동호출	자동 호출 버튼이 있으며,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사고 시 활용	-
⑧ 배터리잔량 원격 확인후 배차	개발 중('12.10월 적용 예정)	-
⑨ 전기차 충전소 시스템과 연계	충전소 위치안내, 충전상황 실시간 모니터링, 전력부하관리	-

□ ⑥번 기능을 통해 이용자가 차량 내에서 잔여 사용시간 등 예약정보 확인이 가능토록 하였으며, ⑦번 기능을 통해 사고 시 자동 호출을 통해 '전기차 쉐어링 서비스'의 안전성 향상을 제고함

□ ⑧번 기능은 전기차의 짧은 주행거리를 감안하여 충전이 완료된 차량을 우선 배차하여 이용자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능임

□ ⑨번 기능은 긴급 상황을 대비하여 이용자에게 충전소 위치를 안내하는 서비스이며,

○ 특히 同 기능은, 충전기의 운전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원격에서 관리하여 운영비용을 경감하도록 하며, 비상전력수급이 필요한 경우 직접 부하제어도 가능함

참고 5 카 쉐어링 국내외 현황

□ 기존 국내 카 쉐어링 사업자 현황

○ 국내에서 카 쉐어링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전기차를 이용한 공동 이용 시스템은 시행된 바 없음

* 양산형 전기차 보급이 가시화되면서 지자체(서울시 등)를 중심으로 전기차 공동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을 수립 중

사업자	지점	가입회원수	차량	7차종
그린카	170개소 (서울,인천,경기 등)	4만명	약200대	엔진차 19종 (전기차 없음)
한국 카 쉐어링	20개소 (서울, 대전 등)	2.8만명	약120대	엔진차 5종 (전기차 없음)

□ 해외 카 쉐어링 추진 현황

○ '87년 스위스에서 시작된 카 쉐어링은 최근 북미와 유럽, 일본을 중심으로 확대 중이며 민간, 민간+정부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

사업자	지점	가입회원수	차량	차종
Zipcar	북미, 영국의 50여개 도시와 100여개 대학	67.5만명	9,000대	엔진차 중심 (GM볼트 등 도입 중)
Bolloré (Autolib)	파리와 주변 45개 중소도시	1.5만명	1,740대	전기차 (블루카)

< 프랑스 오토리브 프로젝트 >

◈ '11.12.5일부터 시행 중인 전기차 쉐어링 서비스로 차를 사용한 뒤 목적지와 가까운 정류장(1,100여곳)에 반납

◈ 차량은 Autolib 사업자인 'Bolloré社'에서 생산하여 지난 5월 EU 인증을 획득한 4인승 전기차로 1충전 주행 거리는 250km

◈ 사용 요금은 1년, 한 달, 일주일, 하루 단위로 회원권을 구입하고 실제 운행 시간에 따라 요금을 추가로 지불